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서 정 선†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가장 친밀한 대인관계 중 하나인 부부를 대상으로 용서가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Kenny(1996)가 제안한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PIM)에 근거하여 검증하였다. 부부는 상호의존적인 특수한 관계로 이들의 자료를 다룰 때에는 대인관계 과정에 적절한 자료 분석 전략을 필요로 한다.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짝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결혼만족에 미치는 용서의 효과를 APIM 사용의 이점과 함께 시험해 보았다. 이를 위해 215쌍의 부부 쌍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APIM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용서는 부부 각자 자신의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부인의 용서는 상대 배우자인 남편의 결혼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개인 내 효과와 대인 간 효과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등가제약 설정을 통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각 효과 간 비교는 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용서는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으며, 부인 용서의 대인 간 영향력이 남편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용서가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이들 효과 간 비교를 통해 개인 내적 과정 뿐 아니라 대인관계 과정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짝 분석(dyadic analysis), 용서, 결혼만족,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

* 짝 자료(dyadic data) 분석 방법을 소개해주신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고재홍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서정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Tel : 031-219-2763, E-mail : supershoes@hanmail.net

부부들의 이혼율은 최근 10년간 심각하게 증가되었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의 원인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Gottman과 Levenson(2000)은 이혼의 가장 큰 예측변인 중 하나가 결혼만족 임을 일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이전에도 Karney와 Bradbury(1995)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결혼한 배우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하며,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이나 불안정이 배우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들을 개관한바 있다.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개인 내적 특성 변인, 대인 간 변인으로 나뉜다. 이중 개인 내적인 특성과 대인 간 특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용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용서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최근 이를 경험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부부의 결혼만족과 관련시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서의 정의 및 기능

용서는 역사, 종교, 철학, 문화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표현되고 논의되어온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김광수, 1999).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는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점(Cotroneo, 1982; Hope, 1987; Smedes, 1984; Enright & Fitzgibbons, 2000; 박종효, 2003; 오영희, 2006 재인용)에서 개인 내적

본질을 갖는 동시에,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대인 관계적 성질을 갖는다(Gouldner, 1973; 오영희, 2006 재인용). 그동안 용서를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온 Enright와 Human Developmental Study Group(1996)은 용서를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체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정교화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용서에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분노, 미움, 증오, 원한, 슬픔 등), 판단(비난, 비판 등), 행동(복수, 처벌 등)이 사라지고 긍정적 정서(동정심, 사랑 등), 판단(비판단적, 상대가 잘되기를 바램 등), 행동(도움을 주고자 함, 화해하고자 함 등)이 나타나는 반응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용서는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판단, 감정,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 사고, 감정, 행동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용서를 한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지만 그러한 분노에 대한 도덕적인 권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자비로운 반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해 자비, 동정, 사랑의 새로운 태도를 가지려 노력한다는 점(North, 1987; Hebl & Enright, 1993)에서 용서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Enright, 2004). 즉 용서는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회복과 자기 치유를 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

용서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기능적 측면 때문이다.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고 자아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중요한 인간적 능력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김광수, 1999),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용서의 증진이 관계 내의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용서가 상담 장면 및 교육장면에서 개입방법으로 사용될 가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용서의 효과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12명의 근친상간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회기를 통해 약 14개월 간 용서 처치를 한 결과 이들에게서 우울과 불안의 감소, 증가된 용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고(Freedman & Enright, 1996), 파트너의 낙태 결정으로 상처 받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불안, 분노, 슬픔에서의 감소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Boyle & Enright, 1997). 상처받은 내담자가 치료 장면에서 그 경험을 떠올리고 용서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한 결과 이들이 갖고 있던 현 문제에서의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Wade, Bailey & Shaffer, 2005)도 용서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효용성을 말해준다. 용서는 일대일의 개입 뿐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입으로서도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수(1999: 대인관계에서 상처 경험이 있는 성인), 김귀녀(2002: 배우자에게 상처 받은 여성), 박종호(2002: 수감중인 여자 청소년), 김희영·김정희·이연숙(2004: 대인관계 상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상처 경험에 대한 용서의 집단적 처치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용서는 상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서는 부정

적인 차원의 해소 뿐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긍정적 차원으로서 용서의 증진은 희망, 자존감,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차원이 치료 장면에서 있는 개입자에게 주는 중요한 이점은 용서 개입시 치료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문제 자체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용서는 문제 자체 보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의 강점과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mith(2006)는 강점에 기초한 상담 모델을 제시하면서 상처받은 내담자가 부정적인 정서(분노, 괴로움, 배신, 절망과 같은)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점에 기초한 기법으로서 용서가 치유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결혼만족과 용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주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다. 오영희(2006)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가족이나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부부 관계는 그 어떤 대인관계 보다 정서적인 개입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의 상처경험은 관계 내 개인들을 우울이나 불안, 분노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러나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지속될 때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훼손하게 됨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두는 것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관계 내에 있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안위까지도 해칠 위험이 있

다. 커플 관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사자 뿐이라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용서는 관계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임에 분명하며, 관계 만족과 개인의 안녕감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최근 Reed와 Enright(2006)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용서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용서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자존감, 환경에 대한 통제감, 삶의 의미 찾기와 같은 긍정적 요소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들의 부정적 요소들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김귀녀(2002)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8회기의 부부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분노에서의 감소를 보였음을 보고했다. 배미자(2003)는 용서와 결혼만족도 사이에 큰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용서의 설명력이 큼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용서는 결혼 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는 유의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과 관련한 용서의 연구는 주로 개인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대인 관계적 측면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서가 개인적인 유익성과 대인 관계적 유익성의 두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차원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용서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배미자(2003)의 연구는 부부 용서가 결혼만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부 쌍 자료가 아닌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각기 다른 독립적인 자료로 다루면서 부부 간 역동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결혼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개인을 연구 단위로 사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ANOVA나 중다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들이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Kashy & Kenny, 2000). 그러나 사회적 상황에 놓인 사람의 관찰치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점수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료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Kashy & Kenny, 2000). Cook(1998)은 일반적으로 개인 내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량분석과 같은 방법들은 커플의 경우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커플 관계에 있는 각 구성원들로부터 얻어진 관찰치의 비독립적인 성질 때문이다.

Kenny(1996)의 설명에 의하면, 커플은 파트너 선정 초기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건강, 관계 가치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한 개인의 특성들이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함께 외부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료는 비독립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부부의 자료가 비독립적인 성질을 띠는 때 관계 내 각 개인을 분석단위로 다루면 첫째, 통계적인 유의미성 검증에 편향을 가져와서 1종 오류나 2종 오류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 (Cook & Snyder, 2005; Kenny, 1996), 둘째, 친밀

한 관계에서 대인간 측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관계 내 두 배우자 중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지와 같은 정보는 대인간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따라서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해내면서도 통계적 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은 짝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방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짝 자료 분석 방법으로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 이 모형은 성격 및 정서(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Robins, Caspi & Moffitt, 2000), 애착(Campbell, Simpson, Kashy & Rholes, 2001; 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대인지각(Kenny & Acitelli, 2001), 부부 치료의 효과성검증(Cook & Snyder, 2005), 결혼만족(박영화 · 고재홍, 2005; 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과 짝 관계 수준 둘 다를 포함하여 동시에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커플 자료의 분석을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은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짝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

되는 분석 방법으로 커플 자료의 비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는 커플이 된다. 즉 샘플의 크기는 개인의 수가 아니라 커플의 수가 된다.

APIM의 두 가지 중심된 구성요소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이다. 자신의 고유한 어떤 특성(X)이 자기 자신의 결과(Y)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라 하며, 자신의 특성(X)이 상대방의 결과(Y')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 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같은 책상을 쓰는 짝궁 A와 B를 생각해 보자. 학생 A의 학업 태도(X)는 A 자신의 학업 성적(Y)에 영향을 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A의 학업 태도는 비단 자기 자신의 학업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 학기동안 같은 자리를 공유하면서 A와 B는 학업과 관련된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A의 학업태도(X)는 짝궁 B의 학업 수행(Y')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B의 학업태도(X')는 자신의 학업성적(Y') 뿐 아니라 짝궁 A의 학업성적(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짝 관계 내에 있는 개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PIM을 통하여 이 두 범주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이 APIM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 보여준다.

APIM에서 구성원 간 영향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은 독립변인들이 혼합변인(mixed variable) 일 때에만 가능하다(Kashy & Kenny, 2000). 혼합변인이란 두 짝 구성원이 서로 독립된 다른 값을 갖도록 허용되는 변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결혼만족은 아내의 결혼만족과 상관없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아

내의 결혼만족은 남편의 점수와 상관없이 높거나 낮은 점수를 갖을 수 있다. 즉, 둘의 점수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남편과 부인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APIM에서는 독립변인들 간 상관과 잔차 변량(residual score) 간 상관의 두 개의 상관이 가정되며(Cook, 1998; 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이들은 중요한 통계적 역할을 한다. 첫째로, 독립변인들 간 상관은 짝 관계에 있는 두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의 점수가 특정 시점에서 상관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 상관이 지정된다(Cook & Snyder, 2005). 또한 독립변인 간 상관은 X 변인이 Y변인을 예측 할 때 다른 X 변인들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과를 추정할 때에 상대방효과는 통제가 되고, 반대의 경우 상대방효과가 추정될 때에 자기효과는 통제되고 추정된다(Cook & Kenny, 2005). 둘째, 잔차(residual) 간 상관은 Y와 Y'가 추정될 때에 X와 X'에 의한 설명량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부부의 경우 가족 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비독립적인 요인들이 종속변인의 값들이 서로 상관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Cook & Kenny, 2005). 즉, 잔차 간 상관은 종속변인에 설명되지 않은 변량이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추가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종속변인의 잔차 간 상관을 가정하면 연구자가 가정한 독립변인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알 수 있게 해주므로 다른 제 3의 변인으로 인한 효과가 혼합되지 않아서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X와 X'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API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 다층 모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부부와 같이 짝 내 구성원들 값이 구분 가능한(distinguishable dyad) 경우에 구조방정식 모델링 방법은 APIM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간명성을 지니는 접근법으로 추천된다(Kenny, Kashy & Cook, 2006). 구분 가능한 짝의 분석에서 구조방정식 이용의 가장 큰 이점은, 모형 내에서 구해진 추정치들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Cook & Kenny, 2005). 이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Cook & Kenny, 2005). 예를 들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영희와 영수의 자기효과는 동일한가?”, “영희와 영수의 상대방효과는 동일한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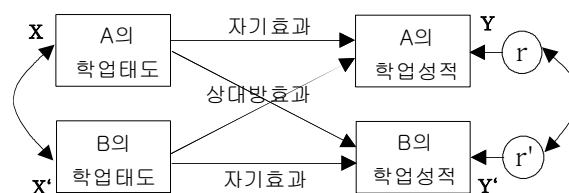


그림 1. 짝 자료에서 APIM 예시

수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수 자신의 용서의 효과와 영희의 용서의 효과가 동일한가?'. 이와 같은 효과들 간의 비교는 등가제약(equality constraint) 설정을 통한 모형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Kenny & Cook, 1999). 등가제약을 하지 않았던 원래 모형의 적합도와 등가제약 설정을 한 모형의 적합도(model fit)에서 카이 자승 값의 차이를 통해 그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만일 등가제약을 설정하기 전 모형 적합도에 비해서 등가제약을 설정한 후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효과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절차를 카이 자승 차이 검증(chi square difference test)이라 한다. 부부는 그 자체로서 남편과 부인 즉 남성과 여성의 성별로 나뉘기 때문에, APIM에서 효과들 간 차이는 자연스럽게 성차이로 귀결된다. 즉 부부자료에서 등가제약을 통한 카이 자승 차이 검증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의 검증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Srivastava, Kelly, Jane, Emily & James, 2006). 또한 변인들이 잠재변인일 경우 구조방정식 접근이 측정의 오차를 고려해 주기 때문에 잠재변인을 갖고 있는 모형의 검증에서는 구조방정식 접근의 사용이 권장된다(Kenny, 1996). 구분 되는 변인(distinguishing variable)을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자료가 동변량임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Kenny et al., 2006). 또한 종래의 경로 분석에서는 '잔차 변량 간 무상관'을 가정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잔차 변량 간 상관을 지정할 수 없었지만, 결혼만족과 같이 그 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매우 여러 가지인 복합적인 개념인 경우 잔차 변량 간 상관은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론 할 수 있다(이순목, 1990).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결혼만족과 용서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부 자료의 비독립적 성질을 고려하여 부부 간 용서와 결혼만족의 대인 간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남편과 부인의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각 효과들 간의 크기 비교를 할 것이다. 자기효과의 확인은 부부 간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나아가 개인 내 효과를 표적으로 하는 용서 개입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상대방 효과의 확인은 부부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용서가 가지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줄 것이다. 효과들 간 비교를 통해서는 누가 용서의 특성 혹은 용서 처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고, 성별에 따른 용서 특성의 차이 혹은 처치의 효과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자료 수집기간을 거쳐서 주로 경기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부 서울, 충청권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다. 부부 쌍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확률 표집법에 해당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406부의 쌍 자료가 배

부되었고, 이중 251쌍의 자료가 수거되었다. 결측치가 많거나 성의없는 응답으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자료들을 빼고 최종 215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결혼기간은 1년 미만부터 38년까지의 범위로 평균 12(SD=8.09)년 이었고, 자녀수는 0명에서 5명까지 중 평균 1.7(SD=0.78)명, 남편의 연령 범위는 27세부터 70세까지로 평균 40.9(SD=8.38)세, 부인은 24세부터 63세까지로 평균 38(SD=7.95)세였다.

측정도구

용서 척도

용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nright의 Forgiveness Inventory(EFI)를 박종효(2006)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검사의 타당화 작업을 거친 EFI-K를 사용하였다. EFI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심각하고 부당하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정서, 인지, 행동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기보고 심리검사이다(박종효, 2006).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대에 대한 정서(20문항), 행동(20문항), 인지(20문항)를 측정하는 6점 리커트 방식의 문항이 제시된다. 각 문항의 인칭은 본 연구에 맞게 ‘그 사람’에서 ‘배우자’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나는 배우자에 대해 다정한 감정이거나 느낌을 가지고 있다.(정서)’, ‘배우자에 관해서 나는 현재 회피하거나 혹은 앞으로 할 것이다.(행동)’, ‘나는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인지)’등의 물음에 대해서 ‘강한 부정(1점)’부터 ‘강한 긍정(6점)’까지 평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용서 수준을 측정하는 60문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처 사건에 관한 배경정보

를 묻는 3문항과 용서의 전반적 타당성을 묻는 6문항은 본 연구의 특성상 사용하지 않았다. 박종효(2006)의 타당화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는 용서검사 전체 .99, 정서영역 .98, 행동영역 .96, 사고영역 .97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각각 .98, .95, .94, .95 이었고, 아내의 경우 각각 .97, .94, .93, .94 이다.

결혼만족 척도

Roach, Frazier 그리고 Bowden(1981)이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노명희와 이숙(1991)이 문항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선택을 다시 하여 구성한 40문항을 본 연구자가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MSS는 결혼만족을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perception)에 관한 것을 측정한다. 하위요인으로는 애정적인 부부관계(20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7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7문항), 권위적인 부부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아주 공허했을 것이다.’, ‘나의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노명희와 이숙(1991)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 결혼만족 .94, 애정적인 부부관계 .92,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82,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77, 권위적인 부부관계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각각 .97, .95, .87, .89, .75이었고, 부인의 경우 각각 .97, .95, .87, .89, .77 이었다.

분석 절차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APIM의 효과 추정에는 Cook과 Snyder(2005)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후 이들 효과 간 상대적 크기 비교를 위해 등가제약을 설정한 모형에서 카이 자승 차이 검증을 하였다. 추정된 계수들의 크기를 성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 둘 다에 걸친 점수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Kenny, Kashy와 Cook(2006)의 권고에 따라, APIM 추정치들을 구하기 전 각 변인의 점수들은 사전에 남편과 부인 둘 다에 걸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점수로 변환되었고 이들 표준화된 점수로 효과 추정이 이루어졌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RMSEA, TLI, CF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들 적합지수는 표본크기에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함께 평가해 주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음을, .10보다 작으면 보통을, .10 이상이면 좋지 못한 적합도를 의미한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결 과

기초 통계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에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과 이를 기초로 한 t 검증을 살펴보면, 용서의 하위요인의 인지 요인 $t=7.0$

표 1. 부부 측정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하위요인	남편	부인	전체	t
용서	정서	99.02(14.58)	96.04(15.45)	97.53	3.22***
	행동	99.81(13.42)	97.93(14.17)	98.87	2.03*
	인지	106.13(11.71)	105.60(13.20)	105.87	0.70
	용서 전체	307.43(37.27)	302.33(38.10)	304.88	2.23*
결혼 만족	애정적관계	75.18(12.59)	72.87(13.71)	74.03	2.95***
	결혼 적응	25.96(4.86)	24.55(5.07)	25.26	4.38***
	결혼불만족	27.66(4.62)	25.98(5.41)	26.82	5.09***
	권위적관계	21.61(3.69)	21.94(4.17)	21.77	-1.08
	결혼만족 전체	151.55(22.93)	146.70(24.79)	149.12	3.20***
신경증		25.67(6.81)	29.17(7.57)	27.42	-5.10***

* $p<.05$, *** $p<.001$

() 괄호 속은 표준편차

과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권위적 부부관계 $t=-1.08$ 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남편과 부인의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총점으로 보았을 때, 용서의 경우 남편($M=307.43$)이 부인($M=302.33$)보다 높았고, 결혼만족의 경우에도 남편($M=151.55$)이 부인($M=146.70$)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용서와 결혼만족에 대한 측정모

형 검증을 하였다.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108$, $TLI=.906$, $CFI=.936$ 이었다. TLI 와 CFI 는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RMSEA$ 는 .10이상으로 좋지 못한 적합도를 보인다. 그러나 $RMSEA$ 는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가 적은 경우 나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TLI 와 CF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홍세화, 2000).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수도 적은 편이므로 TLI 와 CFI 를 위주로 평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들의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 모형의 요인 값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 요인값	표준오차	Z	표준화된 요인값
용서 (남편)	정서	1			.916***
	행동	.872	.046	18.759	.883***
	인지	.788	.038	20.555	.914***
용서 (부인)	정서	1			.904***
	행동	.882	.050	17.589	.872***
	인지	.796	.046	17.137	.856***
결혼만족 (남편)	애정적관계	1			.958***
	결혼 적응	.356	.016	21.562	.877***
	결혼불만족	.330	.016	20.242	.857***
	권위적관계	.213	.017	12.752	.689***
결혼만족 (부인)	애정적관계	1			.898***
	결혼 적응	.350	.019	17.988	.869***
	결혼불만족	.382	.020	18.748	.889***
	권위적관계	.237	.019	12.415	.706***

*** $p<.001$

쌍 자료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남편과 부인의 쌍 자료가 한 척도 내에서 동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Kenny, Kashy와 Cook(2006)의 제안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쌍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잠재요인의 변량과 오차변량, 각 측정 요인의 값, 절편 값은 두 구성원에 걸쳐 동일하게 지정된다. 그 결과 용서 척도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RMSEA=.097$, $TLI=.957$, $CFI=.971$ 으로 모형은 대체로 적합하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용서 척도에서 남편과 부인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만족 척도에서는 적합도가 $RMSEA=.178$, $TLI=.826$, $CFI=.869$ 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편과 부인에게서 결혼만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확인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108$, $TLI=.906$, $CFI=.936$ 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이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편($\gamma=.71$)과 부인($\gamma=.99$)의 용서가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았다. 한편 상대방효과에 있어서는 부인의 용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gamma=.21$)만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즉, 부인 용서가 높을수록 부인 자신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인 남편의 결혼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부인 용서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효과 간 상대적 비교 검증(등가제약 설정 비교)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용서의 자기-상대방효과의 기본 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효과 간 비교를 위해 4개의 등가제약 모형이 설정되었고, 각 등가제약 모형들을 기본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악화된 것이 카

표 3. 구조모형검증결과(용서의 자기-상대방효과 기본모형)

추정 경로	표준화된 회귀계수
남편용서 → 남편결혼만족(자기효과)	.71***
부인용서 → 부인결혼만족(자기효과)	.99***
남편용서 → 부인결혼만족(상대방효과)	-.13
부인용서 → 남편결혼만족(상대방효과)	.21**
부인용서 ↔ 남편용서	.77**
남편결혼만족 잔차 ↔ 부인결혼만족 잔차	.42***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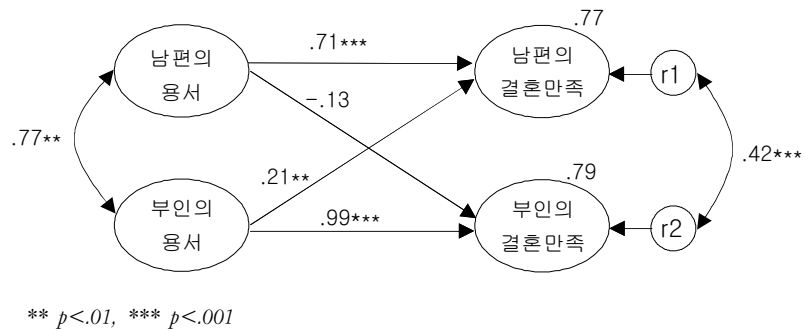


그림 2.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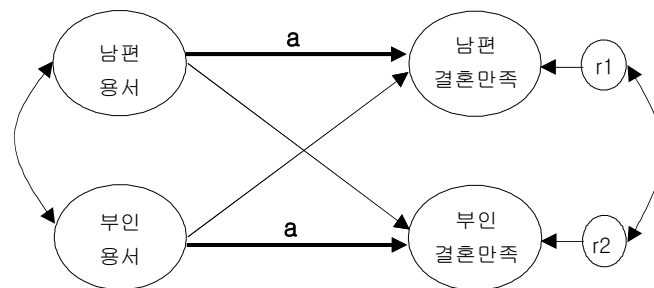


그림 3. 용서의 자기효과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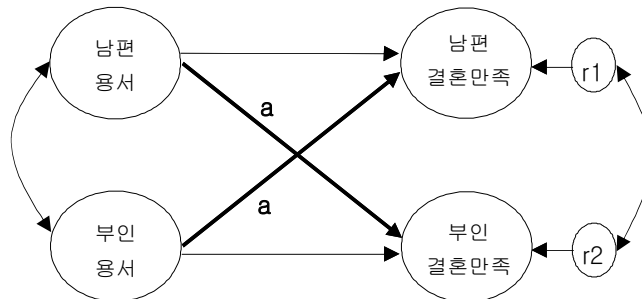


그림 4. 용서의 상대방효과 간 비교

이 자승 차이 검증으로 확인되면 이는 두 효과 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4개의 등가제약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남편과 부인의 자기효과 비교(그림 3)
- (2) 남편과 부인의 상대방효과 비교(그림 4)
- (3)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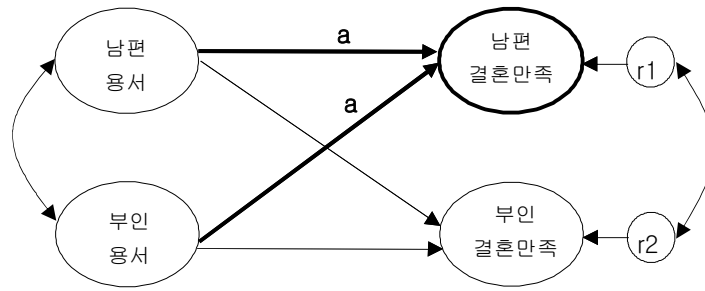


그림 5. 남편의 결혼만족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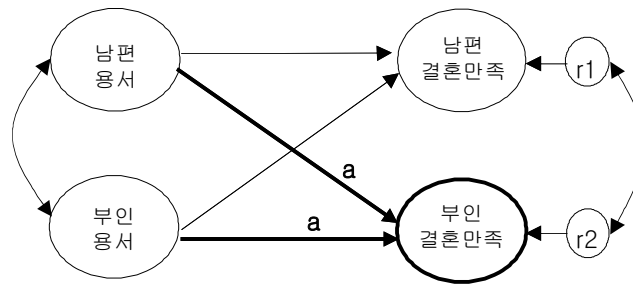


그림 6. 부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부인의 상대방효과 비교(그림 5) (4) 부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인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방효과 비교(그림 6). 등가제약 모형은 그림3~6에,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카이 자승 차이 검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남편의 자기효과와 부인의 자기효과

는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했고, 부인 용서가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 ($\gamma = .99$)가 남편 용서가 자기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친 효과($\gamma = .71$)보다 컸다. 둘째, 남편과 부인의 상대방효과들은 $p < .01$ 수준에서 그 효과 간 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표 4. 효과들의 비교를 위한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도와 χ^2 차이검증

(N=215)	χ^2	df	χ^2 차이검증
(1) 자기효과 등가모형	252.024	72	$\chi^2(1)=5.35, p < .05$
(2) 상대방효과 등가모형	254.345	72	$\chi^2(1)=7.671, p < .01$
(3) 남편의 결혼만족에 대한 등가모형	259.281	72	$\chi^2(1)=12.611, p < .01$
(4) 부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등가모형	295.555	72	$\chi^2(1)=48.881, p < .01$

므로, 남편이 부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r=-.13$)보다 부인 용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r=.21$)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 용서의 효과와 부인 용서의 효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남편 용서가 미치는 자기효과($r=.71$)가 부인 용서가 미치는 상대방효과($r=.2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부인의 결혼만족에 있어서도 부인 자신의 용서가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 효과($r=.99$)가 남편 용서가 부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r=-.13$)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용서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만족에 대한 용서의 영향은 상대방이 미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컸으므로, 상대방에게 귀결시킬 수 없는 자신의 용서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에게서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용서가 개인 내 차원과 대인 간 차원에서 갖는 효과를 Kenny(1996)의 제안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효과 간 크기 비교를 통해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대인 관계의 역동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척도들의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각 척도들이 남편과 부인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서와 결혼만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신의 용서 수준과 자신이 보고한 만족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개인 내적 측면 뿐 아니라 용서가 대인 관계적 측면에 갖는 영향을 규명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의 용서는 자기 자신의 만족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에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서 용서의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인의 용서는 상대방의 결혼만족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각 효과 크기들을 성별 간 비교함으로써 결혼만족에 있어 남편과 부인 둘 중 누구의 용서가 더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교는 관계 내에서 누가 더 큰 역동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의 결과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첫째 결혼만족에 대해 용서가 갖는 자기효과들은 결혼만족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방효과 보다 자기효과가 일관되게 더 큰 것은 부부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결혼만족은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역할에 따라 더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배우자 자신의 행동 변화는 곧 자기 자신의 결과와 직결되며 상대방의 행동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이타적인 성질보다는 이기적인 성질이 더 강함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흔히 용서는 타인에게 주는 값진 선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이롭게 하는 자기를 위한 선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심리학적인 이론의 영역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기주의(self-interest)의 가정이 강화(reinforcement), 효용극대화, 사회적 의사결정 이론과 같은 몇몇 핵심개념 내에 존재한다는 것(van Lange, 2000; Jørgensen, & Nafstad, 2004 재인용)에서도 그 근거를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nright는 그의 저서 "Forgiveness is a choice"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가 선택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용서는 이기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동도 발휘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용서의 시작이 이기적인 측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상처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기적인 용서일지라도 여기에는 이기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의 동기는 자연스레 이타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McCullough, Worthington과 Rachal (1997)도 용서가 인지, 정서, 행동적 현상을 넘어서 이타적인 행동으로 일컬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용서가 일차적으로 합리적인 이기(self-interest)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상당히 지지한다. 이는 van Lange와 Enright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용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용서 처

치에 적용하면 개입의 표적이 개인 내적 과정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로 상대방효과들에 대해 살펴보면, 부인의 경우 용서는 자신의 결혼만족과 함께 남편의 결혼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인 용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결혼만족을 느끼는 것에서 부인보다 남편이 배우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을 뜻한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에서의 성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남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연애 상대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자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같은 좀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Taylor et al., 2000; Voss, Markiewicz, & Doyle, 1999; Walen & Lachman, 2000; Srivastava et al., 2006 재인용)에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용서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양 및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오고 있기 때문에(김광수, 1999; 김희영 등, 2004; 박종호, 2002; Coyle & Enright, 1997; Freedman & Enright, 1996) 상담·치료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즉, 본 연구결과는 용서 촉진적 개입을 통해서 개인 만족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 배우자 만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 용서와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다룬 배미자(2003)의 연구와 같이 자신의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특성과 결과간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의 용서가 상대방의 결혼만족

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다르다. 결혼만족과 용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 살피지 못했던 대인간 과정을 개인 내 과정과 함께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혼만족에서 용서가 갖는 의미를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용서의 원인론에 대한 가설에 따라 APIM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용서는 더 좋은 관계 만족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용서를 더 많이 해서 만족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계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만족하고 있는 개인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용서의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용서와 결혼만족을 다루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용서는 개념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적이다. 용서에 대한 연구가 근래에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복잡하고 심층적인 구조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용서의 개념도 용서가 일어났을 때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용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부부에서 용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용서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결혼관계에 용서가 기여하는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셋째, 용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

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 예컨대, 결혼 기간, 용서 사건의 상처 정도 등이 용서와 결혼만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용서 측정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경험을 전제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상처 경험의 정도에 따른 용서와 결혼만족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용서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결혼만족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용서에는 행위자의 보고 뿐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자기 보고가 있을 수 있다. 용서 받는 자의 지각된 용서 또한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각된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 용서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용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므로써 용서의 지각이 갖는 양방향적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용서에는 진정한 용서와 거짓 용서가 있다. 이러한 용서의 진정성을 본 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용서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성을 짚 분석방법으로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용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쌍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분석의 특성상 부부 둘 다 응답한 쌍 자료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용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잘 설계된 연구에서는 용서질문지를 더욱 정교화하고 분석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귀녀 (2002). 부부용서 프로그램이 분노 및 갈등 해결방식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 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 노명희, 이숙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종효 (2002). 공격적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배미자 (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531.
- Campbell, L., Simpson, J. A., Kashy, D. A. & Rholes, W. S. (2001). Attachment orientations, dependence, and behavior in a stressful situation: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6), 821-843.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ok, W. L. & Sny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33-141.
- Cook, W. L. (1998). Integrating models of interdependence with treatment evaluations in marital therapy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29-542.
- Coyle, D. L.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 1042-1046.
- Enright, R. D., 채규만 역 (2004). *Forgiveness is a choice*. 용서는 선택이다, 학지사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al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Hebl, J. H., & Enright, R. D. (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Jørgensen, I. S., & Nafstad, H. E. (2004). Positive psychology: historical, philosoph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Linley, P. A. & Joseph, S.(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Reis & C.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es in social psychology* (pp.451-47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439-448
- Kenny, D. A. & Cook, W. L.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pp.100-111, 144-150, 170-182).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North, J. (1987). Wrongdoing and forgiveness. *Philosophy*, 62, 336-352.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Robins, R. W., Caspi, A. & Moffit, T. E. (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s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51-259
- Smith, E. J. (2006) The strengeh-based 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13-79
- Srivastava, S., Kelly, M. M., Jane, M. R., Emily, A. B. & James, J. G.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s: How seeing things in positive light makes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43-153.
- Wade, N. G., Bailey, D. C. & Shaffer, P. (2005). Helping Clients Heal: Does Forgiveness Make a differe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6), 634-641.

Whisman, M. A., Uebelacker, L. A., & Weinstock,
L. M. (2004).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5), 830-838.

원 고 접 수 일 : 2007. 1. 4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 25

게 재 결 정 일 : 2007. 2. 15

Influence of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ung-Sun Seo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divided the effect of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into actor and partner effects. We applie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Kenny, 1996) to analyze data from 215 married couples. First, the main effects (actor-partner) of forgiveness were estimated. We then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compare the relative sizes of the paths from forgiveness to husband and wife outcome scores. Results suggest that forgiveness was a significant positive predictor of marital satisfaction for both husbands and wives. In addition, wives' forgiveness predicted husbands'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divided the effect of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into actor and partner effect. Actor effects contributed more to self-reported marital satisfaction than partner effects. The study provides us with interpersonal process aspect as well as intrapersonal process aspect of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ctor effect, partner effect, forgiveness, marital satisfaction, dyadic analysi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